

되는冊에는恭定이라는諡號를使用한 것이 아닌가推測하게된다. 그러나이莊子는太宗이昇遐(世宗四)한지五個月後에印出完了된冊임에도不拘하고光孝라는尊號를使用하였으니위의말과符合되지 않는다. 그러면依例히諡號(恭定)는昇遐後에稱呼하는 것이지만光孝라는尊號는生存과死後의區別이 없이使用할 수 있었던 것인가의심스럽다. 이點은여러분의敎示를 바라가지 않는다. 다음에紙質은 빛깔이 날린黃色葉煙草빛과 같고 넓이三〇미리程度の 발자리가 기리로 매우 희미하게 보이는 장도若干있으나大部分은 발자리가 전연 없고牛毛와 같은極細한線이 올라온 나무결 모양으로 가로진나간 것이 보이며 매우 얇고纖弱하여唐紙가 아닌가疑心하였으나金斗鍾博士의說明에依하면이 종이는옛날咸鏡道地方에서 귀리질으로 만들내었던藁精紙의一種이라고하였다. 끝으로多年間珍書稀本을取扱한金孝植氏에依하면庚子字跋文이添付된庚子字本은五十年生에過眼한 것이이莊子와資治通鑑綱目二種뿐이라하니至極히稀貴하다고할 것이다.

### 『金吾詩帖』의 謙齋畫

#### 弼雲臺京師春色圖

崔 泳 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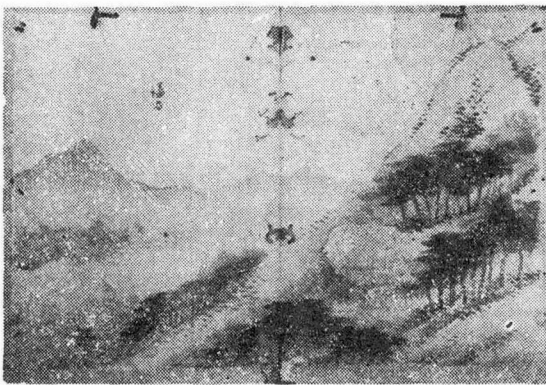
서울大學校 博物館長 李相伯先生 舊藏中에 「金吾詩帖」이란 詩畫帖이 있다. 이것이從來로 흔히 巷間에 돌아다니는 金吾帖이라는 것과는多少 다른 內容인 것과 그 初葉 序文 다음에 붙어 있는 그림이 謙齋의桃花가 方暢한 서울市를 俯瞰하는 것이므로 좀 注意하여 商考하여 본즉, 그것이 肅宗末期에 禁府에 入仕한 사람들이 親睦과 紀念을 위하여 春三月 好時節에 (三月 十七日) 서울 西郊의 名勝地 弼雲臺에서 雅會를 열고 揚叙清遊한 光景이었던 것을 알게 되었다.

沈師周의 序文에 依하면 「金吾之有契帖古也」라고 하고, 「新進者 必畫諸僚公服開坐之狀 書其姓名年甲 作爲十帖 以備諸僚之各取其一 善相與周

旋一府情志既治 而人生之離合無常 官守之去就難知 則宜有是帖 以志他日之相思也」라고 한 것이 우리가從來로 巷間에서 흔히 볼 수 있었던 所謂 「金吾帖」을 말하는 것이다.

그러나從來의 그러한 「金吾帖」은 「以其事不雅 畫亦無可觀 往往棄諸牀几之側 爲兒童戲玩之具 而纔去府 日月稍易 則帖之存者 十無一二 而諸僚之姓氏年紀 有不能記者」이었던 實情으로 우리가 過去에 往往 接見한 것들도 例外없이 穢拙한 畫像으로 보잘 것이 없었고, 또 事實 公服을 입고 開坐하는 形狀을 그린다고 해야, 近年의 公務員 執務狀態를 紀念像影하는 것과 같아서 「其事不雅」라는 것이 當然하다. 그러므로 이 會合의 主張者인 沈師周는 그때 李宜伯이 仕官해서 府中에 新入하여 온 機會에 그러한 無味乾燥하고 低俗한 前例를 打破하여 勝景地에서 携酒賦詩하고 「畫其地 傳其詩」하는 것을 提唱하여 一同의 贊成을 얻어 新仕者 李宜伯이 雅會를 主催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런데 그一行중 當時의 禁府入仕者 十名은 沈師周聖都



謙齋畫

鄭遇寧時甫 崔鳳興儀之尹勳懋伯 李時中宜伯 呂冕 周章甫 朴弼謙景周 魚有瑞汝祥 趙築士信 李彥煥 李文等이나 그들 大部分의 人物에 對하여는 寡聞淺識으로 알 수가 없고, 이 中 沈師周만은 「號寒松 青松人 領相之源 曾孫 尙衣 僉正 廷協之子 顯宗 癸卯 選上庠 己未 除懿陵參奉 例陞奉事都事 戶曹佐郎 盈德縣令 工曹佐郎 咸興判官 全州府使 丁丑 罷歸 卒年 六十七」 이라고 하고 「師周性至孝 弱冠遊寒永權尙夏之門 稱以遠器 奸經術 在盈德 爲治有古循吏之風 在咸興 築大堰 溉荒田萬餘頃以贍民 凡歷四郡 其廉慎愛民如一日」(諄菴集)이라고 하였다. 그런데 우리의 關心을 끄는 것은 이 沈師周가 玄齋 沈師正과 다같이 沈之源의 曾孫이라는 것이니, 그가 玄齋와 몇寸간의 兄弟인지는 알 수 없으나 相當히 가까운 戚分이 있는 사이였다는 點이다. 玄齋의 父는 竹窓 廷靑인즉 親兄弟가 아닌 것만은 確實하다.

이 外의 八名에 對하여는 알 수가 없고(李宜伯은 後述) 大體로 이와 비슷한 階層의 사람들이라고 생각되나 但 師周는 同官中에서도 多少先輩이거나 또는 年齡이 多少 많았던 關係인지 무엇이든지 先唱도 하고 主動者로도 되어 있었던 모양이다. 그러나 그의 序文에 依하면 그는 當日 身病으로 參加하지 못하고 그 外에도 或은 日直으로 或은 身病으로 四名이 參加하지 못하여 直接參加한 사람은 六人 뿐이었다고 한다. 謙齋의 그림 中에도 一行은 六人만이 그려져 있다.

그런데 우리가 이 詩畫帖에 興味를 느끼게 된 것은 事實 그들 會員의 人物에 있는 것도 아니고, 그들의 詩作에 있는 것도 아니고, 또 그러한 雅會에 있는 것도 아니다. 이 詩帖의 初頭에 그린 謙齋의 漢城春景을 附瞰하는 當時 京師勝地이었던 弼雲臺의 情景이다. 또 當日의 主催者인 李宜伯이 이 會合을 光彩있게 하기 위하여 當代 畫家中의 第一人者인 謙齋에게 그림을 付托하고 이에 불처서 當代 畫家中의 第一人者이었던 梧亭 李宜炳에게 詩帖의 글씨를 付托하여, 書와 畫에 當代 第一人者를 모았다는 것이 이 詩帖을 빛나게 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當時의 一同 들에게도 큰 자랑거리였던 것이 沈師周의 序文中에 있는

「宜伯又屬謙齋畫弼雲 梧亭寫詩儼成十帖 畫 謙齋之畫 梧亭之畫 當

世無對 而華于一帖中 此眞一時之奇事也」  
라고 자랑한 것으로도 알 수 있고, 이러한 훌륭한 書畫를 얻음으로서 그들은 子孫에게 寶傳할 二重三重的 眞寶를 얻게 되었다는 것이다. 前文에 繼續한 師周의

「使後之子孫 非愚無知識 則必知是書是畫之可愛 則必想其父祖之詠歌遊衍之趣 而歎息而流涕也 然則其寶而藏之 將無異於妙楷之帖寶藤之軸也 向所謂契帖 云者 雖病之可也 噫 非宜伯之賢 則不能以辨效遊 非二公之筆 則不足以成其美 余於茲帖 謂有三美具焉」  
이라는 稱頌은 이것을 表示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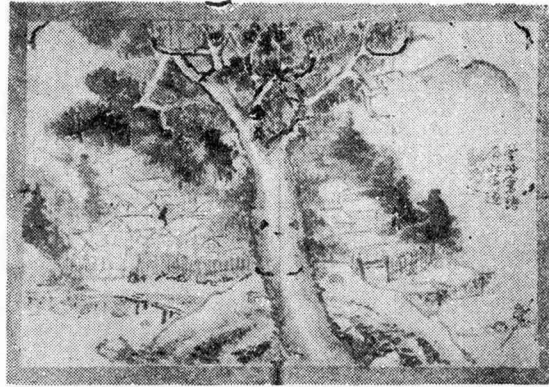
이 帖의 書家인 梧亭에 對하여는 지금 些細한 것을 알 수 없어 後日의 商考를 기다리는 수밖에 없으나, 人名錄에 依하면

「李宜炳 字文仲 號梧亭 一云雪川 龍仁人 右相世白從侄 肅宗九年癸亥生 肅宗四十一年乙未進士 善書」

이라고 있다. 文中의 李世白은 號雪沙 或 北溪 肅宗朝에 右相 左相으로 在位六年 金尙憲이 그 外曾王父다. 이 世白의 從侄인 宜炳과 이 會合의 主催者인 宜伯과는 얼른 보기에 무슨 戚分關係나 있는 것 같으나 事實은 아무 關係가 없고 宜伯은 그 本名이 時中, 號致庵, 世宗의 別子 廣平大君璵의 後라고 하며 領議政儒의 孫이다. 己未에 領相의 嗣孫으로 錄用되어, 歷官하여 都總府副總官 同義禁 同中樞 漢城府右尹을 지냈다고 하니 當代의 名家子弟임에 틀림없다.

그런데 우리가 이 詩帖에 對하여 또 한가지 위에서 紹介한 것 外에 特殊한 興味를 느끼는 것은 그 末尾에 能熟한 筆書로 크게 「家廷古蹟 世傳法賞」이라고 쓰여 있고 「景道」라는 署名이 있으며 그 뒤에 이어 山水 畫三片이 그려져 있어 그 筆致와 畫題가 凡手が 아닌 것은 一目瞭然할 程度다. 그래서 이 「景道」란 人物을 商考해 본즉, 葦滄先生의 「書畫徵」에 「尹濟弘 字景道 號鶴山 坡平人 錫復子 正宗十八年文科登第 官至承旨 善畫山水」

라고 있어, 山水畫에 相當한 造詣가 있던 名士임을 알게 되었다. 그러므로 이 詩帖은 尹濟弘의 家傳寶物로 坡平尹氏家에서 世傳해 오던 것이



景道畫

오이 雅會의 會員  
이었던 尹勤의 所持  
品이 그 子孫에게  
傳하였던 것을 알 수  
있다.

尹景道の 山水畫  
三幅의 一例는 別示  
한 寫眞으로 알 수  
있으나 그 畫題만을  
抄出하여 보면、

- (1) 李凌壺 每喜作  
古松下燒香獨聖  
老人 未知與此  
何如 景道
- (2) 偶尙寫意 未必  
有此境 亦未必  
無此境
- (3) 蔡冲寰譜 有此  
本 遂戲學之

이 三片의 山水畫  
는 文人畫로서 相當  
히 높히 評價할 수

리의 表面에 글자를 새겨서 誌石(墓誌銘)으로 利用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即 地方窯産으로 推測되는 卵白色釉의 圓筒型有蓋壺에다가 뚜껑에는  
楷書로 『誌石』이라고 두 字를 큼직하게 쓰고 항아리의 몸통이 全體에는  
亦是 楷書로

『學生沈公之墓 公諱能淵字道彥 靑松人考諱 詰寬妣淸州金氏公 純祖甲  
申四月二十日生 太上皇辛卯正月二十六日卒墓在洪原好賢社要洞壬坐配  
金海金氏 子宜鋪宜鑄宜鏤宜鏞宜鏗庚戌九月日』

이라고 八十字를 또박또박 正성드려 썼는데 뚜껑의 글자나 항아리 몸통  
이의 글자들은 全部 깊이 陰刻된 後 鐵砂로 象嵌이 되어 있다.

陶磁로 된 墓誌는 大개 靑華나 鐵砂나 陰刻 등으로 文字를 記錄한 册  
形狀의 矩形陶磁板인데 이 壺形誌石같이 뚜껑까지 具備해 있는 항아리  
를 誌石으로 利用한 것은 보기 드문 것으로서 이에 간단히 紹介하는 바  
이다.

東國大學 黃壽永 教授도 오래 前에 뚜껑은 없으나 筆筒같은 모양의 文  
字가 쓰여 있는 항아리를 하나 보았는데 그 內容을 읽어 보니 墓誌銘이  
있었다 한다.

그러면 한 때 어느  
地方에서 이와 같이  
항아리를 利用해서  
墓誌로 쓰던 일이 있  
지나 않았나 생각할  
수도 있을 것이며 또  
한 걸음더 나가서 이  
壺形誌石과 같이 항

아리로 된 誌石을 墓  
앞에 묻을 때에는 空  
壺로 묻은 것이 아니  
라 死者의 冥福을 빌

壺形誌石

있는 境地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믿어진다.

全 登 弼

題하여 『壺形誌石』이라 하였으나 實은 뚜껑까지 完全한 아담한 항아

